

마quil론 투생-사마 <먹거리의 역사>

▣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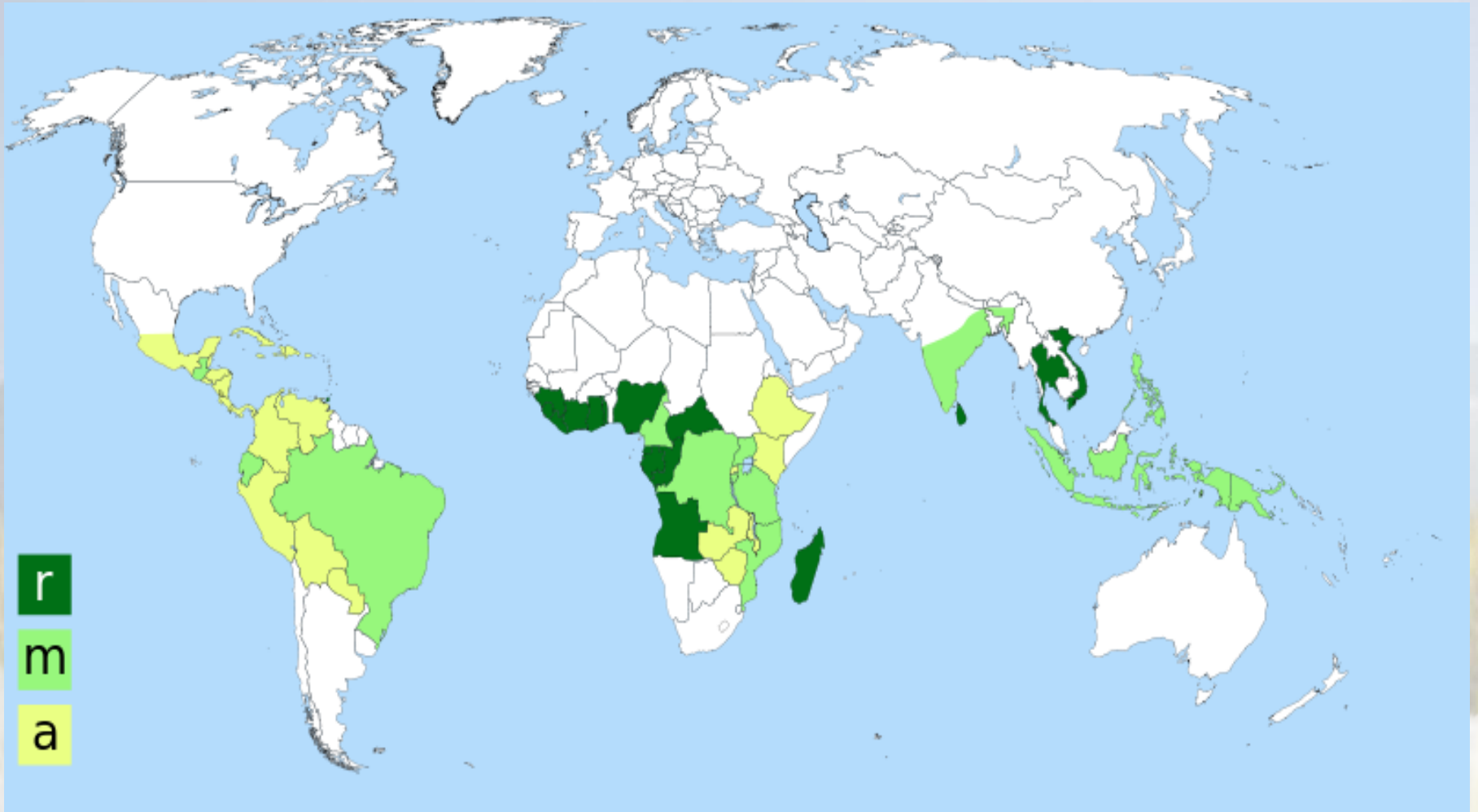
- 야생 커피는 이디오피아에서 처음 발견
- 9세기부터 페르시아에서 소비
- 15-16세기 예멘, 이집트 등에서 유행; 아랍지역 전체로 확산
- 이탈리아로 수출-베니스에서 유럽 전체로 전파

-1580년, 유럽인 알피노 "터키인들은 검은색의 음료를 마신다. 식사 중이 아니라 식사를 마친 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친구들과 함께 별미로 마신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다"

-뒤마 <음식사전>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이슬람교 성직자들이 커피 하우스에는 언제나 사람이 가득하고 이슬람 사원은 텅 비어있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몽테스키외 <페르시아인의 편지> "내가 만약 왕이라면, 사람들이 뇌가 피곤할 정도 열을 내게 만드는 카페를 폐쇄해버릴 것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술집에서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술에 취하면 자신들만 다치게 되지만, 커피에 취하면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만든다"

커피 재배지역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Carte_Coffea_robusta_arabic.svg



-숙제?

-이경해씨를 아시나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 농업협정에 반대하며 자결

나는 56세, 한국에서 온 농민이며, 젊은 시절 희망을 가지고 동료들과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자 노력하였던, 그러나 결국 실패만을 거듭한 많은 농촌지도자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나고 곧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게도 수백 년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고향 농촌이 큰 파도로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그 큰 파도의 근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함에 여기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온몸으로 절규한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WTO 농업협상은 그만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험한 산간토지를 개간함으로써 스스로 낙농농장을 개척한 젊은 농군이였다. 계곡 아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에 쌀농사도 지으며. 나의 소중한 직업-'농사'를 지으며 다른 동료들과 같이 단체를 만들고 이로써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부터 달이 뜰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고 혁신적인 영농기술과 경영을 배우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농사를 키워나갔다. 더욱이 영농후계자로서 우리는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역할에 자부심을 가졌다. (지금은 어떠하냐고? 내 낙농 농장은 빛으로 문을 닫았고, 논만 좀 남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순박하고 작은 가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가져다 줄 충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한 순간 들끓는 두려움 속에 싸이고 말았다. 우리는 밤잠을 잘 수 없었고 WTO에 와 아더 던켈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하여 결정, 여기에 온 적이 있다. (중략)

나는 지금, 인류는 지금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허구적인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업을 말살시킬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나는 단호히 말하건대, 우루과이라운드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집단들이 다국적 기업과 외눈박이 학자연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자기들의 골치아픈 농업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 판 사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먹거리와 사회학적 상상력

○ Sociological Imagination: "the vivid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the wider society."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enables its possessor to understand the larger historical scene in terms of its meaning for the inner life and the external career of a variety of individuals. It enables him to take into account how individuals, in the welter of their daily experiences, often become falsely conscious of their social positions" (C. Wright Mills, 1959: 5).

-개인을 넘어서 사회구조를 보기

-역사(history)와 개인사(biography)의 관계 이해

-사적 문제(personal trouble) → 공적인 문제(public issue)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201.html



<http://cafe.daum.net/making-up>

산업화된 먹거리 vs 안전한 먹거리



<http://tvanouvelles.ca/lcn/infos/national/archives/2002/08/20020808-164718.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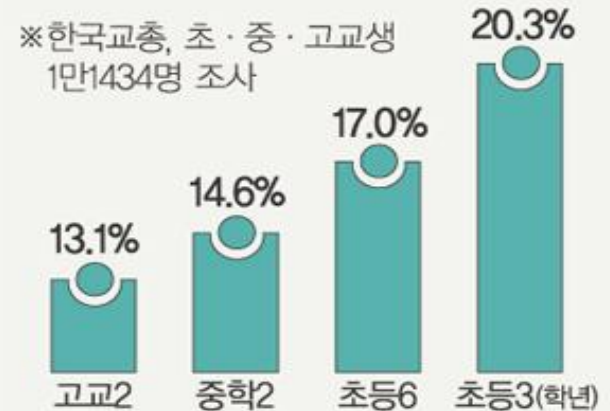


중국산 계란 가공품서 멜라민 검출
 사회 감사원 감사위원 주식 내부정보 이용 의혹 내사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228673_578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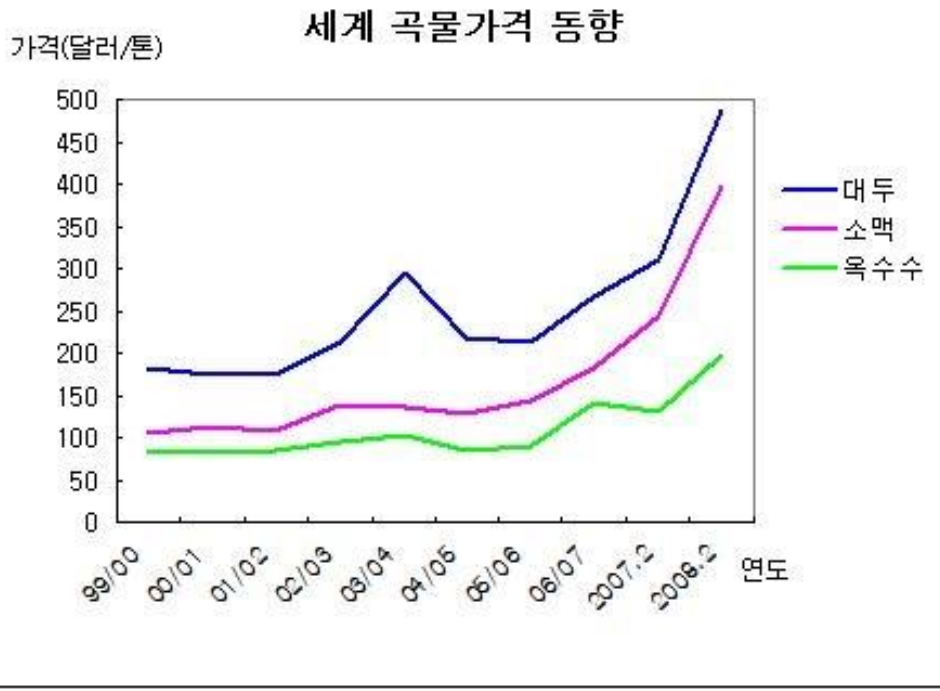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2528

아토피 피부염 발병률



<http://cafe.daum.net/9942221/8U0J/129?docid=19nTN8U0J12920071031011445>



<http://www.615europa.de/chunzegisa%2001062007/2285-19032008.html>



<http://blog.daum.net/dandakhan/16535989>

II. 먹거리 사회학: 이론과 방법론



전통적 농식품 체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지역적 생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식품의 생산에 관련되어 있었음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자급자족• 지역의 경계를 넘지 않음• 친족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른 형태를 통해 분배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적 변동에 민감함• 사회적 지위와 토지 소유가 소비될 식량의 총량 결정• 대부분 가정에서 식사• 지역적-전통적 음식이 잘 보존됨

현대 농식품 체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산업적 과정• 직접 생산에는 소수의 전문화된 생산자만 참여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지구적(global)• '시장(market)'이 식품 분배에 있어 핵심 메커니즘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유한 사람들은 계절적 변동에 의한 위험부담이 적음• 화폐가 식품 접근에 결정적• 외식의 일상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소비의 다양화, 퓨전 음식

현대 농식품 체계의 특징

- 세계화
- 산업화
- 자연과의 괴리
- 지역으로부터의 분리
- 전문화

